

2026년 5월 4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외생 변수를 극복하는 실적 모멘텀

이번 주 코스피는 1) 연휴 기간 중 미국 증시 변화, 2)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 여부, 3) 미국 4월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 4) 팔란티어, AMD 등 미국 시주 실적, 5)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여부 등에 영향 받으며 6,800pt대 진입을 시도할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500~6,820pt).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연준 정책 등 외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지난주 M7, 반도체 등 주도주 실적시즌 모멘텀으로 지수 레벨업을 시현한 상황. 이번주에도 주식시장은 대내외 주요 매크로, 실적 이벤트를 치르면서 단기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vs 주도주 모멘텀 강화에 따른 추가 매수 수요 간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종합해보면, 4월 주가 폭동에 따른 단기 피로감, 5월 5일 휴장 등이 주 초반 중 차익실현 물량, 숨고르기성 조정 압력을 일시적으로 가할 여지가 있음. 그렇지만,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 미-이란 협상 타결 가능성 등 상방 재료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주에도 코스피가 고점을 높여가는 경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설정해두는 것이 적절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3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1분기 실적 기대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매파적 FOMC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부담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상승 마감 (KOSPI +1.9%, KOSDAQ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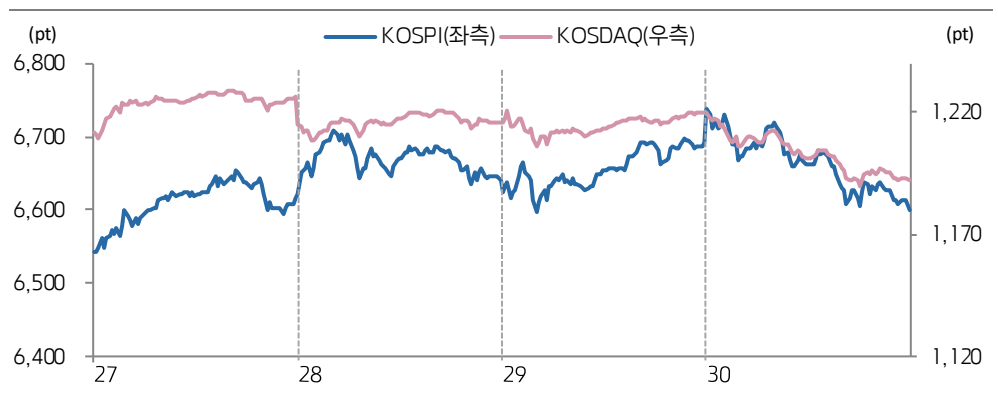
코스피는 주 초반 미국 기술주 강세와 AI 수요 확대 기대에 따른 1분기 실적 기대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맞물리며 상승.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이익 기대가 반영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6,700pt 터치. 다만 주 중반 이후 M7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와 단기 랠리 부담이 누적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 주 후반에는 FOMC에서 매파적 문구가 확인되며 미 국채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미국 군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관련 군사 옵션을 브리핑했다는 보도와 해55상 봉쇄 가능성이 부각되며 WTI 100달러 후반까지 상승. 이에 따라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부담이 확대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되며 코스피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상승폭 제한 마감

특히 미국 증시는 주 초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 그러나 이후 오픈AI 실적 목표 미달 소식과 M7 실적 대기심리, FOMC 이후 금리 상승 압력이 맞물리며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국내 증시에도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 다만 알파벳, MS,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CAPEX 상향은 AI 투자 사이클 지속 기대를 재확인시키며 국내 반도체 업종의 중장기 이익 전망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업종별로 기계/장비(+5.02%), 오락/문화(+2.89%), 전기/전자(+2.73%), 금융(+2.41%), 제조(+2.21%)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4.96%), 전기/가스(-4.58%), 제약(-3.97%), 증권(-3.8%), 통신(-3.58%)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1조 3,910억원)은 일반서비스(-2,172억원), IT 서비스(-1,625억원), 운송장비/부품(-1,370억원), 운송/창고(-1,113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2조 2,490억원)은 제조(+24,316억원), KOSPI(+22,490억원), 전기/전자(+20,594억원), 기계/장비(+2,397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5월 4일	월	미국	제조업 수주 (MoM)	3월	-0.1%	0.0%
		EU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5월	-	-19.2
	휴장	일본(녹색의 날), 중국(노동절)				
5월 5일	화	미국	무역수지	4월	-\$59.7B	-\$57.30B
			S&P 서비스업 PMI (최종치)	4월	-	51.3
			JOLTs 구인이직건수	3월	6,700K	6,882K
			ISM 서비스업 PMI	4월	53.9	54.0
	발언	뉴욕 연은 총재				
	휴장	한국(어린이날), 일본(어린이날), 중국(노동절)				
	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5월	-	4.10%	
	실적	팔란티어, 화이자				
5월 6일	수	한국	CPI (YoY)	4월	-	2.2%
		중국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4월	-	52.1
		EU	PPI (YoY)	3월	-	-3.0%
		미국	ADP 취업자 변동수	4월	-	62K
	발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휴장	일본(제한절)				
	실적	AMD, 디즈니, 노보노디스크, 우버				
	5월 7일	목	한국	산업생산 (YoY)	3월	-
중국			제조업 PMI	4월	50.1	50.4
미국			경제성장률 (QoQ, 잠정치)	1분기	1.4%	0.5%
		PCE 물가지수 (MoM)	3월	0.7%	0.4%	
		PCE 근원 물가지수 (MoM)	3월	0.3%	0.4%	
		PCE 물가지수 (YoY)	3월	3.5%	2.8%	
		PCE 근원 물가지수 (YoY)	3월	3.2%	3.0%	
		개인 소득 (MoM)	3월	0.3%	-0.1%	
		개인 소비지출 (MoM)	3월	0.8%	0.5%	
발언		시카고 연은 총재				
휴장		일본				
실적	카카오, SK 텔레콤, CJ ENM					
5월 8일	금	한국	경상수지	3월	-	\$23.19B
		미국	비농업고용자수	4월	-63k	178K
		실업률	4월	4.3%	4.3%	
		시간당 평균임금 (MoM)	4월	0.3%	0.2%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4월	48.8	49.8	
		미시간 1년 인플레이션 (잠정치)	5월	-	4.7%	
	발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뉴욕 연은 총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연휴 기간 중 미국 증시 변화, 2)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 여부, 3) 미국 4월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 4) 팔란티어, AMD 등 미국 AI주 실적, 5)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여부 등에 영향 받으며 6,800pt대 진입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500~6,820pt).

국내 휴장기간 미국 증시는 알파벳, 아마존 vs 메타, MS 등 빅테크 간 엇갈린 실적 발표에도, 연간 CAPEX 상향(기존 6,500억달러 -> 7,000억달러 이상), 샌디스크의 어닝 서프라이즈 등에 따른 메모리 업 사이클 기대감 재확대, 미-이란 협상 진전 가능성에 따른 유가 상승세 제한 등에 힘입어 상승(4월 30일~5월 1일 2거래일간 누적, 다우 + 1.3%, S&P500 +1.3%, 나스닥 +1.8%).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연준 정책 등 외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지난주 M7, 반도체 등 주도주 실적시즌 모멘텀으로 지수 레벨업을 시현한 상황. 이번 주에도 주식시장은 대내외 주요 매크로, 실적 이벤트를 치르면서 단기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실현 vs 주도주 모멘텀 강화에 따른 추가 매수 수요 간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우선 매크로상 3월 PCE, 5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주 후반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8일)이 메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 지난 4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방 불확실성을 유지했으며, 동시에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하방 위험을 낮추는 식의 입장을 표명했음. 이 같은 매파적인 경기 판단으로 연내 금리 동결 기조는 강화되고 있는 모습(Fed Watch, 12월 FOMC까지 동결 확률 77%).

따라서, 이번 4월 고용은 부진하게 나오는 것이 증시 입장에서는 중립 이상의 요인.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4월 신규고용이 7.3만건(vs 3월 17.8만건), 실업률이 4.3%(vs 3월 4.3%)로 전달보다 둔화될 것으로 형성된 상태. 물론 이번 고용이 컨센을 하회하더라도, 중동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등으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되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다만, 최근 4.3~4.4%대로 올라섰던 10년물 금리의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이번 고용의 중요성이 높을 전망.

상기 매크로 이벤트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결정하는 미-이란 협상 관련 뉴스플로우도 중요할 것임. 그렇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전쟁보다는 실적, 펀더멘털의 주가 영향력이 높아진 국면으로 돌입했기에, 팔란티어, AMD 등 미국 AI주 실적 결과, 반도체 업종 중심의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변화 여부가 주중 증시 레벨업의 강도를 결정할 전망.

먼저, 4일 예정된 팔란티어 실적은 3~4월 중 앤스로픽 사태 등으로 SaaS 위기론을 겪었던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에 걸친 주가 회복력을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예정. 이번 팔란티어 실적은 상업 부문의 고성장세 지속성(전분기 +137%, YoY), 이를 포함한 수익성과 성장성 지표인 Rule of 40 성적(전분기 +127%) 등이 관건.

다음날(5일) 발표 예정인 AMD 실적은 팔란티어보다 국내 반도체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이들 업체의 데이터센터 매출 가속화 정도, 신형 AI 칩(MI350)의 고객사 다변화 여부, 차세대 AI칩(MI450) 양산 일정 구체화 등이 반도체주 실적 추정과 직결된 재료가기 때문. 동시에 AMD는 4월 이후 약 77% 폭등하는 과정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2026년 5월 4일

KIWOOM WEEKLY

반영된 측면이 있기에, 실적 발표 당일날 셀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열고 갈 필요.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건설, 증권, 방산 등 주도주 실적 이벤트가 종료된 가운데, 미국 팔란티어, AMD 실적 발표 이후의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변화에 무게중심이 실릴 전망이다. 4월 말 기준 코스피의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50조원으로 3월 말 644조원 대비 약 32% 상향된 영향에 힘입어 코스피는 4월 31%대 주가 폭등세를 누렸던 상황. 국내 휴장 기간 중 확인된 한국의 4월 수출(YoY 48.3% vs 컨센 45.0%)이 반도체(YoY, +173%), SSD(YoY, +714%) 등 IT 품목 호조로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는 등 2분기 이후 실적 기대감도 생성 중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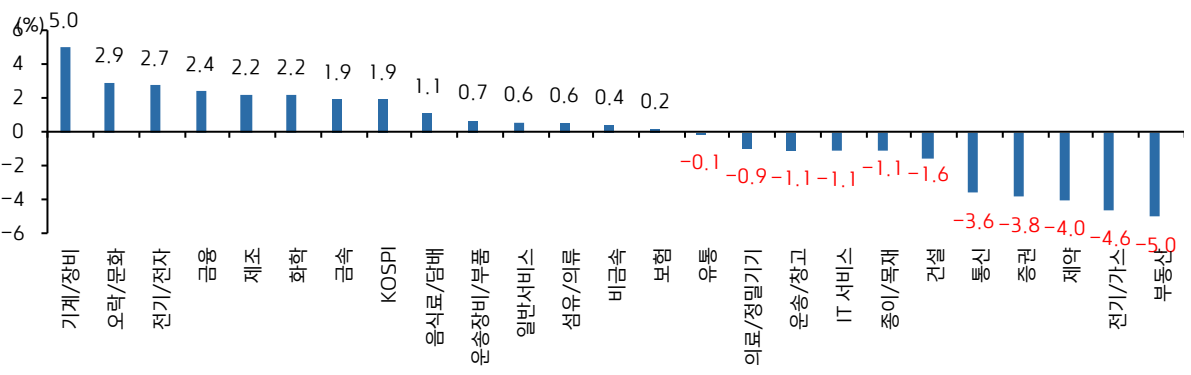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4월 주가 폭등에 따른 단기 피로감, 5월 5일 휴장 등이 주 초반 중 차익실현 물량, 숨고르기성 조정 압력을 일시적으로 가할 여지가 있음. 그렇지만,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 미-이란 협상 타결 가능성 등 상방 재료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주에도 코스피가 고점을 넘어가는 경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설정해두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598.87	-1.4	1.9	25.0	56.6
대형주	7,022.94	-1.4	1.7	26.0	60.4
중형주	5,098.78	-1.3	4.2	19.4	37.0
소형주	3,022.74	-1.2	3.3	11.8	20.1
코스피 200	992.15	-1.4	1.7	27.2	63.7
코스닥	1,192.35	-2.3	1.5	7.7	28.8
대형주	2,839.46	-3.0	0.9	2.1	26.1
중형주	1,264.26	-2.0	2.3	17.4	40.5
소형주	3,329.75	-0.7	2.1	12.8	29.4
코스닥 150	1,999.32	-3.0	0.9	3.5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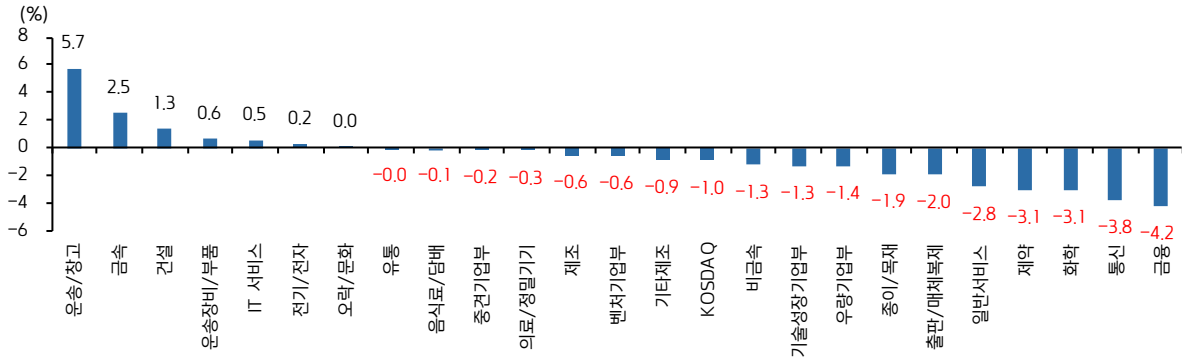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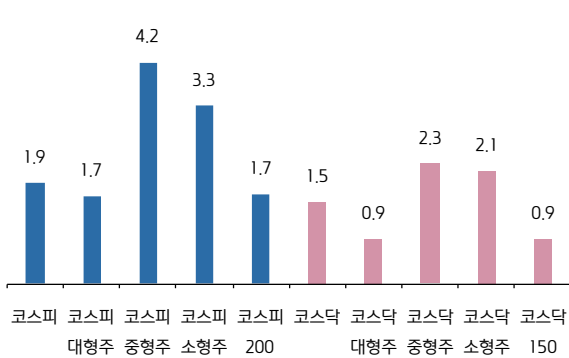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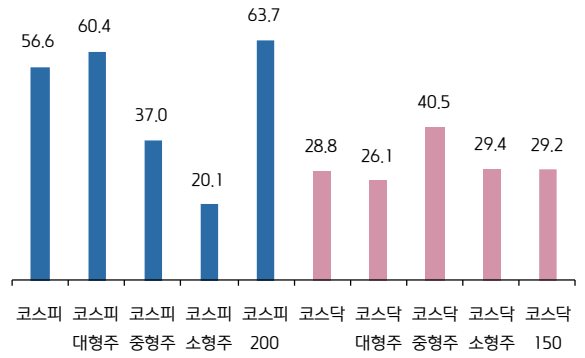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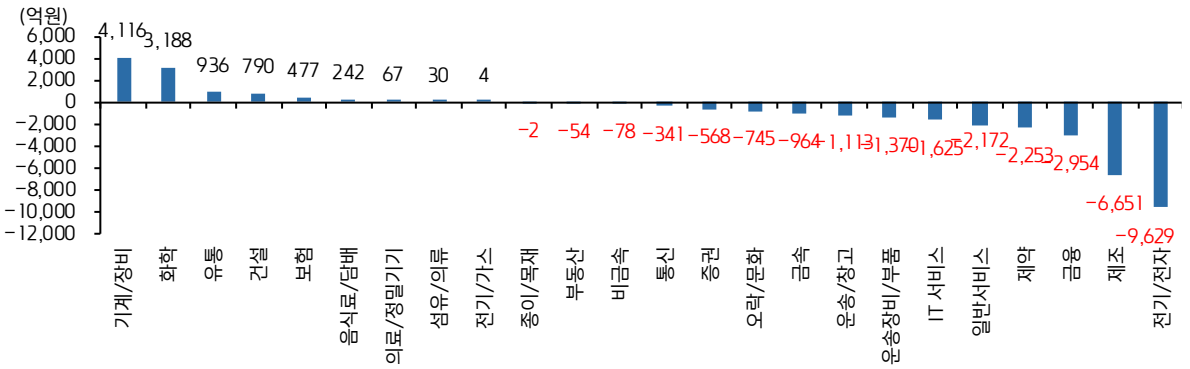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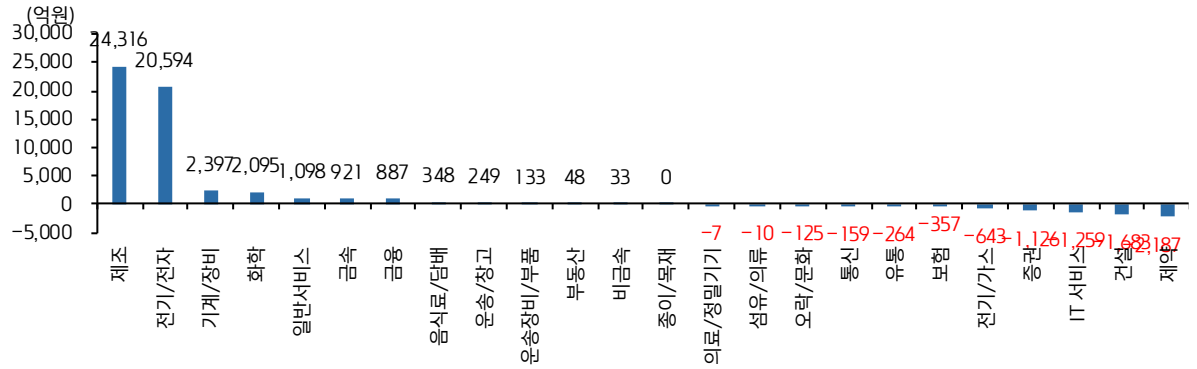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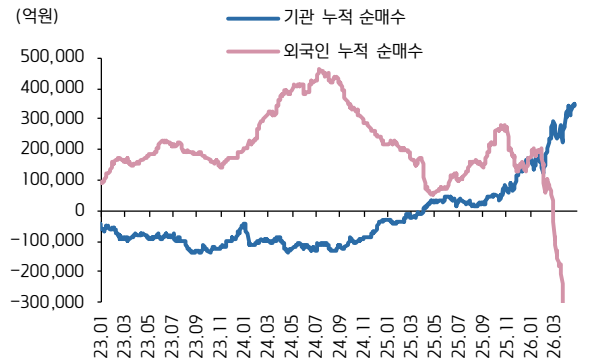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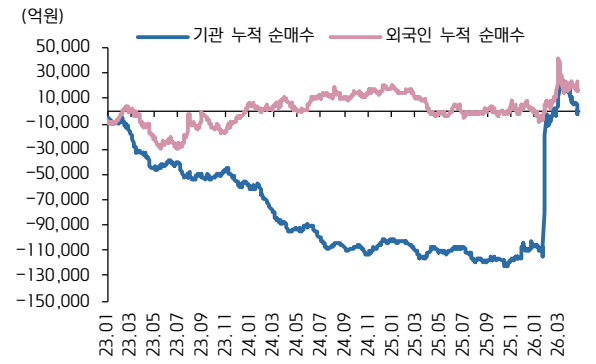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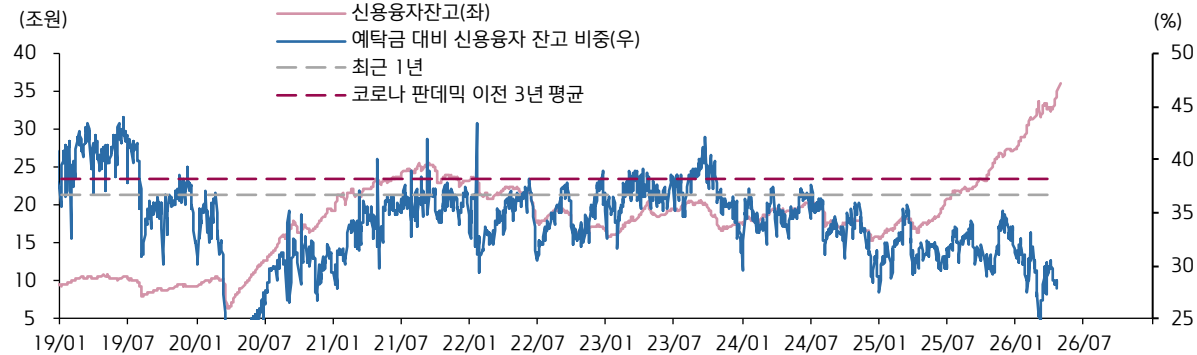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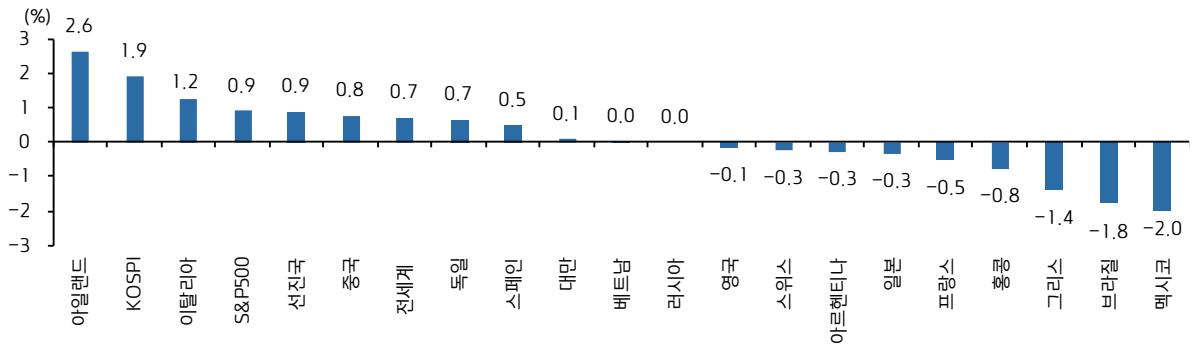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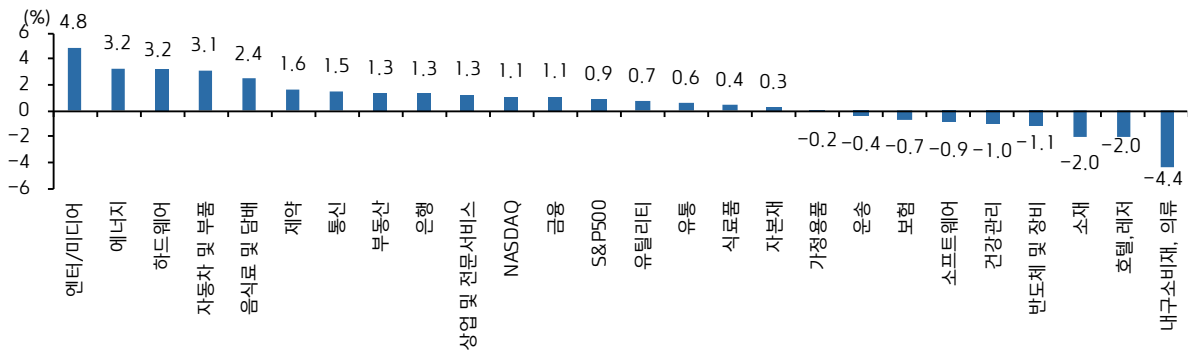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